

지 상 법 석

누구나 대보살 될 수 있어

마음을 잠구 하는 수행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구 하는 사람입니다

래야 진정한 대장부이지요. 대장부는 지기를 잊고 우주와 하나되는 그릇이기에 중생을 남이라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있게 방편을 사용하고 방편을 통해서 해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여(如如)하게 되었을 때 중생제도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겠지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힘없이 정진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정진해 공법(空法)과 무상법(無常法)을 요달했을 때 모든 지혜와 방편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와같은 최상승의 법을 얻기 위해서는 일념(一念)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일념으로 인해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불·보살이 가지고 있는 초인적인 능력인 신족통(神通通) 천인통 천

고 버려야 해요. 망상을 버려야 내 육체가 있어도 '공' 함을 보고, 상(相)을 버리게 됩니다.

망하고 흥하고 일고 버릴 것도 없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하면 늘고 병들어도 괴롭지 않습니다. 부질없는 집착으로 자연의 순리에 따른 생로병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몸과 마음이 편하게 살려는 것은 신선(神仙)의 도를 닦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그렇게 오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자비를 내는 불제자들은 중생과 함께 살면서 중생을 바른 길로 제도합니다.

행주좌와(行住坐臥) 하는 동안 끊임없이 마음을 깨어 있는 상태로 두어 편히 사물을 관하다 보면 인생의 생로병사를 자연히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은 경계에서의 정법생활은 수행

입니다.

오늘날 과학시대에도 보살사상에 대한 연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만이 잘 살기 보다는 서로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겠기에,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 보살의 정신을 구현해야 합니다. 대보살은 세상의 희로애락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초월해 평화롭게 사는 길을 인도해 줍니다.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요, 싫어도 싫은 게 아닌 최상승의 공법을 얻어야 대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을 구하는 자는 마땅히 '공법'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정진을 부지런히 해야 하겠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전생과 공생에 지은 죄업을 남김없이 뉘우치고 참회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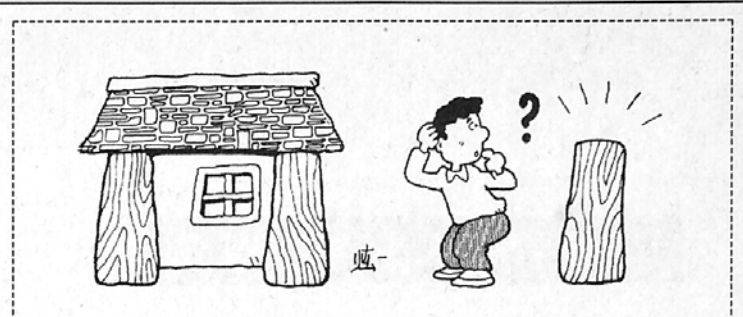
전생에 지은 죄업이 없었고 설켜 정신을 괴롭히고 생활을 고단하게 합니

이지요. 또한 계율을 잘 모르거나 인과법(因果法)이 무섭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계율이 바로 인과의 원리에서 나타난 사실을 알지 못하니 잘못된 행위의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행자는 일념으로 정진을 해야 합니다. 참선을 하든 관세를 염불을 하든 자신이 배운 방법(法方)을 일념으로 잘 닦으면 결실을 보는 날이 올 겁니다. 서울 가는 길은 사람으로 나 있지만 서로 통하는 이치와 같지요. 참선 중인 염불 독경이 방법은 달라도 일념으로 정진하면 모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매일 중생제도 서원을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는 참선으로 깨달은 이가 많습니 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참선이 유명하지요. 오늘날 방랑곡곡의 깊은 산중에서 '이 빛' 하며 참선하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거사님 보살님들도 참선을 많이 하시지요.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24

양형진

불상부단(不常不斷)

존재자가 자성을 가지고 생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무자성공인 열반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 불생불멸이라 한다면, 용수보살이 불상부단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존재자의 연속성에 관한 논의이다. 여기서 상(常)이란 상주(常住)로서 변화

지 않는 자성을 가지고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斷)이란 단멸(斷滅)로서 연속성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연기무자성공의 입장에서의 불생불멸이 이미 불상부단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본다면 불생불멸이 생멸의 과정 즉 생멸이라는 상태 잔이에 주목하는 것인데 반하여 불상부단은 생한 존재자와 말한 존재자 간의 연속성에 관한 논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불상(不常)은 일단 생한 존재자가 생이란 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단(不斷)은 말한 존재자의 말이란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생(生)과 상(常)을 죽은 멸(滅)과 단(斷)을 같은 의미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가 양자역학의 해가 제시하는 확률분포를 따라 두개의 양성자 주위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수소 분자는 수소원자의 상태가 그대로 연속 된 상(常)의 상태가 아니므로 불상(不常)이다. 그러나 수소분자가 수소원자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불을 단(斷)의 상태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 또한 부단(不斷)이다. 결국 수소원자와 수소분자의 관계는 상도 아니요 단도 아니니, 불상부단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있다'와 '없다'로 우주 파악하기는 불가능 오직 연기에 의해 모든 변화·인과 살펴야

하여 보자. 수소분자는 수소 원자 두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수소분자를 이루는 두 개의 원자는 결합하기 이전의 원자와 어떤 관계에 있게 되는지를 불상부단과 연관시켜 보자. 수소 원자란 전에도 말했듯이 하나의 양성자 주위를 하나의 전자가 도는 것이다. 수소분자란 두개의 양성자 A와 B가 어느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두 양성자 주위를 두개의 전자가 도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수소분자의 상태가 말랑말랑한 공 두개를 풀로 풀어 놓은 것과 같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이다. 공 두개를 풀어 놓았다면 각각의 공은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게 된다. 수소분자의 경우가 이러한 공의 경우와 같다면, A라는 양성자 주위를 돌던 전자는 수소 분자로 결합되고 나서도 그대로 양성자 A의 주위를 돌아야 되고, B라는 양성자 주위를 돌던 전자는 그대로 B의 주위를 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수소 분자의 상태는 그렇지 않다. A라는 양성자 주위를 돌던 전자나 B라는 양성자 주위를 돌던 전자가 모두 똑같이 양성자 A와 B의 주변을 돌며,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게 된다. 양자역학은 다만 두개의 전자들이 공간상의 각 점에 있을 확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뿐이다. 그렇다면 어느 전자가 양성자 A의 주위를 돌고 있던 전자였는지를 말한다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다. 우리가 수소분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두개의 전자

므로 부단(不斷)이요, 짝이 소생하여도 썩는 이미 멸하였으므로 불상(不常)이다. 짝과 썩, 목재와 집, 수소원자와 수소분자 간의 모든 관계는 따라서 상도 아니요 멸도 아니다. 이렇듯 인과란 자성이 없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연기적이며 상대적이며, 단상(斷常)이라는 양극단의 견해에 떨어지지 말고 연기 무자성공의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불상부단이라 하겠다. 이를 용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사물이 연을 따라 생한다면 이는 원인과 같은 것도 아니요 또한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단멸하는 것도 아니요 상주하는 것도 아니다. (중론 관법품 제18장 제10계) "공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에 집착하는 것이며 공이 없다고 한다면 단멸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자는 마땅히 있거나 없거나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중론 관유무품 제15장 제10계) "따라서 상주라는 절대적 동일성이나 단멸이라는 절대적 차별성으로 우주를 온전히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연기에 의해 모든 변화와 인과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 희론(戲論)을 적멸(寂滅)하여 열반에 이르게 하는 중도사상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용수보살은 다시 이렇게 말한다. "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며 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으며 불멸이고 불생인 것을 열반이라 한다. (중론 관법품 제18장 제7계) "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삼독심 물에 빨듯 참회해야 생로병사 초월 법보시는 미혹한 중생을 깨닫게하는 씨앗

이름 타심통 숙명통(宿命通) 누진통(漏盡通) 등 육신통은 모두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법력입니다. 법을 구하려는 자는 이 '한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구도자입니다.

대진리가 숨어있는 이 무심경계(無心境界)를 깨우는 이들이 바로 불·보살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 먹은대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경지는 마음을 통해 열리고 나타납니다. 모든 여러의 법은 오직 마음을 열어 마음의

부질없는 집착 버려야

이치를 깨닫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마음 수련을 통해 '공법'을 이해하게 되면 편안하게 사물을 관하고 거기에 응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중생들은 항상 삼심이 편안치 못하고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몸이 없다는 걸 관(觀)해야 공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생로병사가 있는 이 몸에 '공'의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끝없이 잠잠해 싸인 생각을 버리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몸이 없다는 것을 보아야

공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 과정처럼 괴롭지 않고 즐겁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중생에게 법을 설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는 제불보살에게 입은 은혜를 다시 중생에게 갖는 하나의 인연법이지요.

중생에게 베푸는 보시에는 금은철보·꽃·차(茶)·사탕·법보시 등이 있지만, 단연 법보시가 가장 고귀한 겁니다. 물질적 보시는 순간의 괴로움을 잊게 하고 즐거움을 주지만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은 배가 불러도 풀어서면 배가 고파지듯이 물질적 보시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법보시는 보시 받는 중생을 깨닫게 하는 씨앗이 되므로 영원한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법보시는 아무튼 받을 바히듯 미혹한 중생의 마음을 지혜로 이

다. 그것이 더러우면 깨끗이 그것을 닦고 음식을 담아 먹어야 하듯이, 새로운 삶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구법자들은 구수를 닦아내기 위한 참회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이 몸을 씻고 새옷을 입는 마음으로 신심을 발해 정진할 때 정법을 향한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중생을 괴롭히는 악의 근원인 나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란 삼독심(三毒心)을 물에 빨듯이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수행의 전제로 삼아야 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아들과 딸을 살해하는 등도 보도 못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탐·진·치 삼독이 극단으로 표출된 하나의 예

내 마음을 관하고 진리를 찾지 않으면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똑바로 알아야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법을 구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해서는 아무 이익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90살까지도 자기 몸은 자신이 간수해야 하는 때입니다. 옛날처럼 나이 대접 받고 편안히 여생을 마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불제자들도 이러한 시대에 승속(僧俗)을 떠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모든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과 지혜를 두루 갖춘 대실력자가 되어 이 세상 괴로운 중생들을 제도하려는 서원(誓願)을 잠시라도 잊지 않습니다.

'95 어린이날 기념 제1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그림그리기대회

Advertisement for a drawing competition. It features large stylized text: '부처님그림그리기대회' and '조용히'. Below the text, it says '어린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그립니다.' and '우리 어린이 불자들 가슴 속에 부처님을 모십니다. 각자마다 가장 친근하고 존경스러운 부처님을 그려 모십니다. 물론 도화지에 크레파스, 그림물감으로 그리는 것이지만 그건 단지 눈에 보이는 형상일 뿐이요, 가슴 가슴마다엔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진짜 부처님이 주석하실 것입니다.' There are two illustrations: one of a group of children and one of a Buddha figure. At the bottom, there are details about the event: '일시: 1995년 5월 5일 10시', '대상: 전국의 어린이 불자 (국민학교 1~6학년)', '준비물: 도시락, 화판, 크레파스나 물감 (참가비 없음)', '참가 전원 목아불교박물관 무료입장, 기념품 증정 (1,000명 선착순)', '장소: 경기도 여주 목아불교박물관 0337) 85-9952', '참가신청: 전화 02) 420-3200 월간'불광'(95년 4월 25일 까지 접수)', '시상: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10명, 특별상(단체상), 각 부문 상장 및 상품 (심사: 한국불교미술인협회 소속 화가)'. At the very bottom, it lists sponsors: '주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 지도자 연합회, 한국불교 미술인 협회 / 주최: 월간'불광', 목아불교박물관 / 후원: 불광사 불광법회, 칠보사, 재단법인 보덕학회, 도솔회, 불교 TV, 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대한불교신문, 법보신문, 월간 동쪽나라, 도서출판 단이술'.